“만약 당신의 삶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…?”

유언장 사이트 운영자 이성희 씨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. 그리고 유언장을 써보라고 권유한다.

스스로 ‘유언장 은행장’ 이라 부르는 이 씨는 올 초부터 유언장을 작성해서 보관해 두는 인터넷 서비스 유언장닷컴을 운영하고 있다. 8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을 다녀갔고 이 중 2000명 가까이 비공개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.